

# “서민이여 투표하라, 부패정권을 심판하라”

## 서민적 정치

### 서민 지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샤를 드골의 정치 관련 명언이다. 모두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쥐어준다.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학생들.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교수가 최근 펴낸 '서민적 정치'는 한국정치의 면모를 해부하듯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한국 정치에 대해 아쉬운 점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썼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학생층 학자이지만 정치관련 칼럼을 꾸준히 써온 시사 칼럼니스트이다.

야구 마니아인 저자는 정치를 야구와 비교한다. 야구와 정치는 모두 철저하게 룰에 따라 움직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야구심판이 엉뚱한 판정을 내린다면 관중들은 야우를 보낸다. 이처럼 정치 역시 야구 관중과 같은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좌·우파를 넘어 서민파를 위한 발칙한 통찰’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 괴물과 싸우며 괴물이 되지 않는 법(서민적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혐오를 혐오하라(그릇된 생각을 부추기는 정치 프레임) ▲협오에 맞서는 1cm 정치생각 ▲서민적 정치의 미래 등 크게 4부로 나눠 리더의 역할, 색깔론과 선거, 고령화 시대의 투표, 정치와 복지 등 다양한 한국 정치 현주소를 들여다 본다. 저자는 특유의 은유와 반어법, 풍자적인 문체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네안데르탈인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스탠데 페보 박사의 사례를 들어 ‘리더의 역할’을 살펴본다. 페보 박사는 팀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교수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도록 했다. 그래서 국가운영의 ‘제일 원칙’은 민주적인 소통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혼란스러운 정치판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책과 신문 읽기를 권한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심판의 기능을 하지만, 그 심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차례의 선거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로, 유

권자들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 ‘불신’ 아니면 ‘광신’ 성향을 보인다. 정치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정치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정치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열광하고 팬클럽을 자처하고 나선다. 그래서 저자는 “특정인에게 쏠린 팬클럽 정치가 자칫하면 정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금배지의 전횡과 특권을 방관하지 말자. 제대로 된 당치가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 4만5700km를 혼자 걸으며 얻은 생각 행복의 기준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

## 생이 보일 때까지 걷기

### 크리스티네 튀르머 지음

“트레일 위에서의 삶은 행복의 기준을 상상하기는 커녕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렸다. 지난 두 달동안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보면 내게 진정한 필요란 것이 얼마나 적은지도 금세 알 수 있었다. 먹을거리, 물, 온기, 쉼은 날씨를 피할 장소. 이 모든 것이 총 몇 킬로그램에 불과한 작은 배낭 안에 들어 있었다.”

독일 중견 기업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



‘길’ 위로 나섰다. 그리고 8년간 걷고, 먹고, 자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됐다. 8년간 25컬레 신발에 구멍을 내고 0.5t의 초콜릿을 먹으며 2000여일 이상의 밤을 텐트에서 보낸 셈이었다.

까지 올랐던 능력있는 여성 크리스티네 튀르머는 갑작스레 해고를 당한다. 여기에 오랜 친구의 죽음까지 겪은 그는 어느 날 ‘길’ 위로 나섰다. 그리고 8년간 걷고, 먹고, 자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됐다. 8년간 25컬레 신발에 구멍을 내고 0.5t의 초콜릿을 먹으며 2000여일 이상의 밤을 텐트에서 보낸 셈이었다.

크리스티네 튀르머가 8년여의 걷기 여정 중 2004~2008년까지 1만2700km를 종주한 기록을 묶어 ‘생이 보일 때까지 걷기’를 펴냈다.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사이의 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4277km),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의 대륙 분수계(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미국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콘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CDT·4900km), 미국 동부 애팔래치아 산맥을 따라 이어진 애팔래치아 트레일(AT·3508km)을 걸은 기록이다.

그녀가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에는 혼자서 걸으며 깨닫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연봉 인상, 더 좋은 집, 고가의 신발 등에 집착했던 지금까지 가졌던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온몸으로 느끼고 먼길을 홀로 걸으며 혼자 일 때 가장 강해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간다.

책에 소개된 세 코스 중 주 후 그녀는 ‘아웃백’이라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황무지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서유럽과 남유럽 전체(총 3만 3000km)를 도보 여행했다. 또 무릎 관절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 도보 여행 사이에는 자전거로 한국, 미국, 북유럽(3만km)을 달렸고 미시시피, 스웨덴 운하(6000km)를 노를 저으며 카누로 건넜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걷고 있다. <살림·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리영희를 함께 읽다=리영희재단과 장비학당이 공동으로 기획한 ‘리영희 함께 읽기’ 강좌의 내용을 엮은 책. 고병권, 김동춘, 구갑우, 홍윤기 등 동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저마다의 관심과 관점으로 리영희 텍스트를 독해하고, 그 현재의 의미를 여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결과다. 첫 저서인 ‘전환시대의 논리’(1974)부터 그가 투병 중에 완성한 구술회고록 ‘대화’(2005)에 이르기까지 리영희의 사유를 다시 사유함으로써 자유인으로 사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창비·1만8000원>

▲차가운 계산기=경제학의 본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세인트앤드루스 경영대학 부교수 필립 로스코의 첫 대중 저술. 절묘한 문학적 비유와 폭넓은 실증 연구, 저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한데 녹여냄으로써 경제학이 만드는 디스토피아를 펼쳐 보인다. 책은 경제학이 어떻게 쇠사슬을 끊고 실험실을 탈출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열린책들·1만7000원>

▲반전 동화=상식을 뒤집는 35가지 반전동화. ‘3명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집필자’ 우에사카 도루가 경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일류 사원, 최고의 인기 예능인 등 30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면서 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성공비법을 새로운 동화 해석과 점목시켜 비즈니스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으로 담아냈다. <나무한그루·1만3000원>

▲스피노자의 귀환=국내 연구의 성과를 집약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스피노자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책. 프랑스 현대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치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국내 정상의 철학 연구자 8인이 현대철학과 스피노자의 긴밀한 관계를 추적하는 이 책은 오늘날 한국 철학계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 준다. 책의 말미에는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프랑수아 모로 그리고 앙드레 토켈과의 대담을 실었다. <민음사·3만원>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우리는 남의 불행에 즐기고 마음속에는 이미 병법사가 있으므로 ‘손자병법’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중국 작가 다오얼펄이 쓴 이 책의 중국어 제목은 ‘不必讀書目-읽을 필요가 없는 도서 목록’이다. 저자는 특정한 독서 태도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제목을 내걸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고전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고전 읽기란 옛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지금 관점에 맞게 독자가 먼저 의미를 제거하기를 강조한다. <알마·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알록 고양이 토리=고양이 집사 공감 웹툰 ‘뽀자뽀’ 작가 채유리의 첫 창작 그림책. 길가의 풀 한 포기나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생명을 맡게 온 작가는 어린 고양이 한 마리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닌 고양이 토리를 통해 이야기한다. <씨드북·1만2000원>

▲선생님이 돌아온 학교=어린이 작가 박현숙의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후속 작품. 채팅을 통한 왕따 등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여 준다. 공부 잘한다고, 비싼 차라고 으스스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못마땅한 아이들이 ‘왕따’라는 불통의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역할극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이해하게 된다. <꿈터·1만1000원>

▲간질 간질=어린이들의 마음을 포착해 공감하고 치유하는 그림책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서현 작가의 세 번째 그림책.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로 감정



과 욕망을 시원하게 드러낸다. 머리카라한 울로 출발한 상상력이 감각적인 캐릭터, 들쭉거리는 몸짓과 소리, 군무 연출로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계절·1만3800원>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부모로서 아이를 향한 바람과 격려를 담은 그림동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단어 하나하나로 표현되어 그림 속에 숨어 있고, 그 단어를 아이와 함께 찾아 보면 아이보다 엄마가 먼저 감동하게 되는 아름답고 독특한 스타일의 책이다. <칭어람아이·1만20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건물과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에예약 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